

활동계획짜기

운동의 진행 상황을 분석하는 도구

실케 크레우셀(Silke Kreusel) + 안드레아스 스펡(Andreas Speck)

때때로 활동가들은 운동이 잘 진행되어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조차도 무력감을 느낀다. 따라서 운동의 진행 양상을 이해하고 성공을 가늠하는 것이 활동가들과 단체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다. 1980년대에 빌 모이어(Bill Moyer)가 개발한 활동계획짜기(Movement Action Plan, MAP)는 이것을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그것은 성공적인 운동의 여덟 가지 단계와 활동가들의 네 가지 역할을 묘사하고 있다.

전략적 가정

활동계획짜기는 일곱 가지 전략적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 1. 사회운동은 과거에 강력함이 입증되었고, 바라건대 미래에도 강력할 것이다.**
- 2. 사회운동은 사회의 중심에 있다.** 그것은 정의, 자유, 민주주의, 시민적 권리 등 사회의 가장 진보적인 가치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비록 국가나 정부에 반대하더라도 사회운동은 더 나은 사회를 추구하지 사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 3. 진짜 문제는 “사회정의” 대 “기득권”이다.** 운동은 사회정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기득권을 대변한다.
- 4. 대전략은 참여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결핍은 부정의 및 사회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다. 운동의 목표(예컨대 터키의 병역거부권, 영국의 도로 건설 중단 등)를 위한 싸움의 핵심은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에 있다.
- 5. 목표 대상은 일반 시민들이다.** 그들은 권력자들에게 동의함으로써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한다. 사회운동의 핵심 문제는 대중의 지지를 두고 권력자들과 싸우는 것이다. 현상유지나 변화냐를 결정하는 힘은 궁극적으로 대중에게 있다.
- 6. 성공은 장기적 과정이지 단순한 일회적 사건이 아니다.** 최종적인 성공을 위해서 운동은 긴 일련의 하위목표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7. 사회운동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사회운동의 여덟 단계

운동은 시나브로 시작된다. 제1단계, **일상적인 활동**의 주요 목표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고 사회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기존 절차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다(제2단계). 청문회, 법적 절차, 행정 절차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가 대중을 위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즉,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사회운동의 발전을 위한 **조건 성숙**으로 이어진다(제3단계). 사람들은 듣기 시작하고 새로운 단체와 작은 시민불복종 행동들을 조직하여 문제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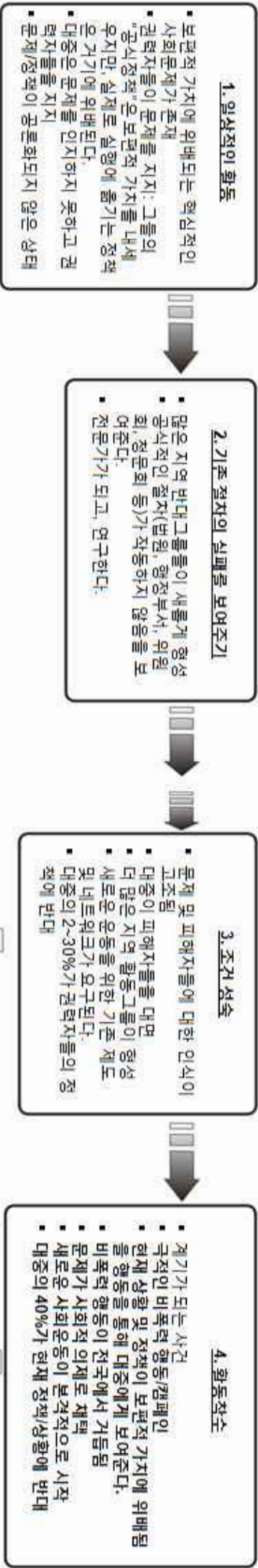
만약 운동이 과제(새로운 단체 조직, 네트워크 및 연대 형성)를 잘 수행한다면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착수**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제4단계). 이것은 운동에 의해 계획될 수도 있고(1974년 독일 뵐(Wyhl)의 건설현장 점거는 독일 반핵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권력자들 덕분에 이뤄질 수도 있다. 계기가 되는 사건은 대규모 시위와 시민불복종, 언론의 폭넓은 관심으로 이어진다. 비록 운동이 대중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할지라도 권력자들은 보통 이 단계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종종 많은 활동가들에게 **실패의 자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제5단계). 이러한 태도는 운동에 사람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언론이 운동을 부정적으로 다룸으로써 강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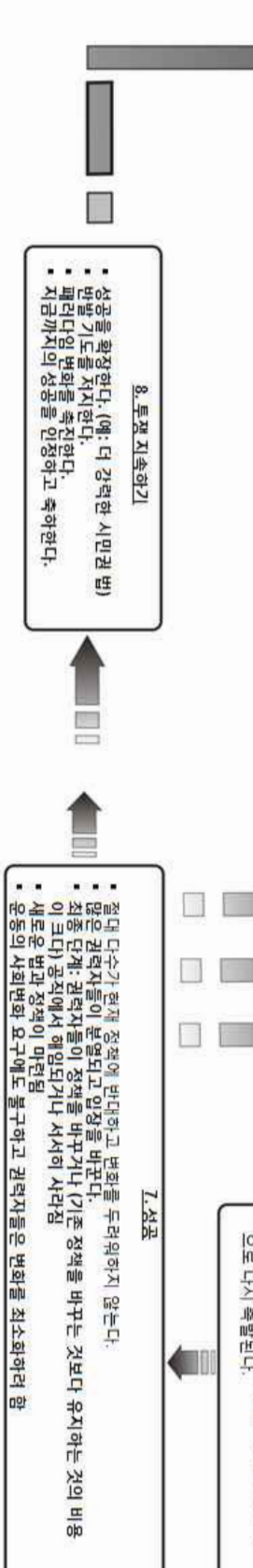
하지만 동시에 운동은 **다수의 마음 얻기** 단계로 돌입한다(제6단계). 지금까지는 시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는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의 거의 4분의 3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변화인가를 놓고 벌어지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력자들은 회유와 탄압, 속임수(독일 정부는 현재 핵폐기물을 고어레벤(Gorleben) 대신 아우스(Ahaus) 지방으로 보내려 하고 있다: 6쪽 참조)를 사용하려 들 것이다. 속임수를 막고 대안적인 해결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실질적인 **성공**은 장기적인 과정이며 때로는 인식하기 어렵다(제7단계). 운동의 과제는 단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 즉 새로운 사고방식을 성취해야 한다. 에너지에 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고 단지 핵발전소의 전원을 끄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방사능에서 이산화탄소로 이동시키는 것 이상이 되지 못한다(어쨌든 이것도 성공이기는 하지만). 여성 몇 명을 사무실에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운동이 승리하고 나면(대립적인 투쟁을 통해서든 장기간에 걸쳐 권력자들의 힘이 약화되어서든) 성공을 현실화해야 한다. **성공의 강화와 다른 투쟁으로의 이동**은 이 단계 운동의 임무이다 (제8단계).



사회운동의 여덟 단계



활동가들의 네 가지 역할

활동가들은 위의 여덟 단계에서 수많은 일을 한다.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보통 활동가들을 네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운동이 성공하려면 모든 유형이 다 존재해야 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반항아(rebel)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운동 하면 떠올리는 그런 유형의 활동가이다. 비폭력 직접행동 및 공개적인 반대 선언을 통해 반항아들은 문제를 정치적 의제에 올려놓는다. 하지만 스스로를 사회 주변부의 외톨이로 위치 짓고 전투적인 급진주의자처럼 행동하여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반항아들은 3단계와 4단계 및 계기가 되는 사건 이후에 중요하나, 보통 6단계 혹은 그 이후 단계에 다른 초기 단계의 운동으로 이동한다.

개혁가(reformer)는 종종 운동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기존 절차의 실패를 보여주거나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때때로 기존 체도를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운동의 성공을 강화하기에는 너무 작은 개혁을 제안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citizen)은 운동이 주요한 지지층을 잃지 않도록 한다. 그들은 운동이 사회의 중심(고어레벤 시위에 참여했던 교사, 의사, 농부 등)에서 활동하며 탄압으로부터 사회를 지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민은 권력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어버려 운동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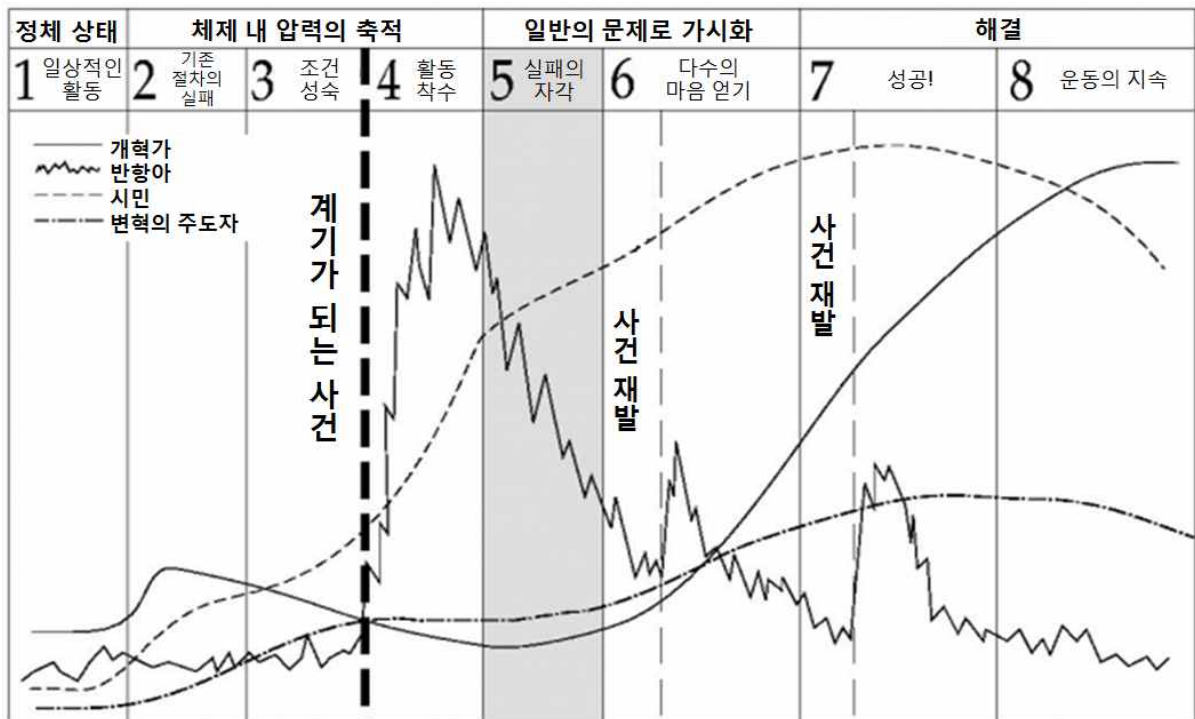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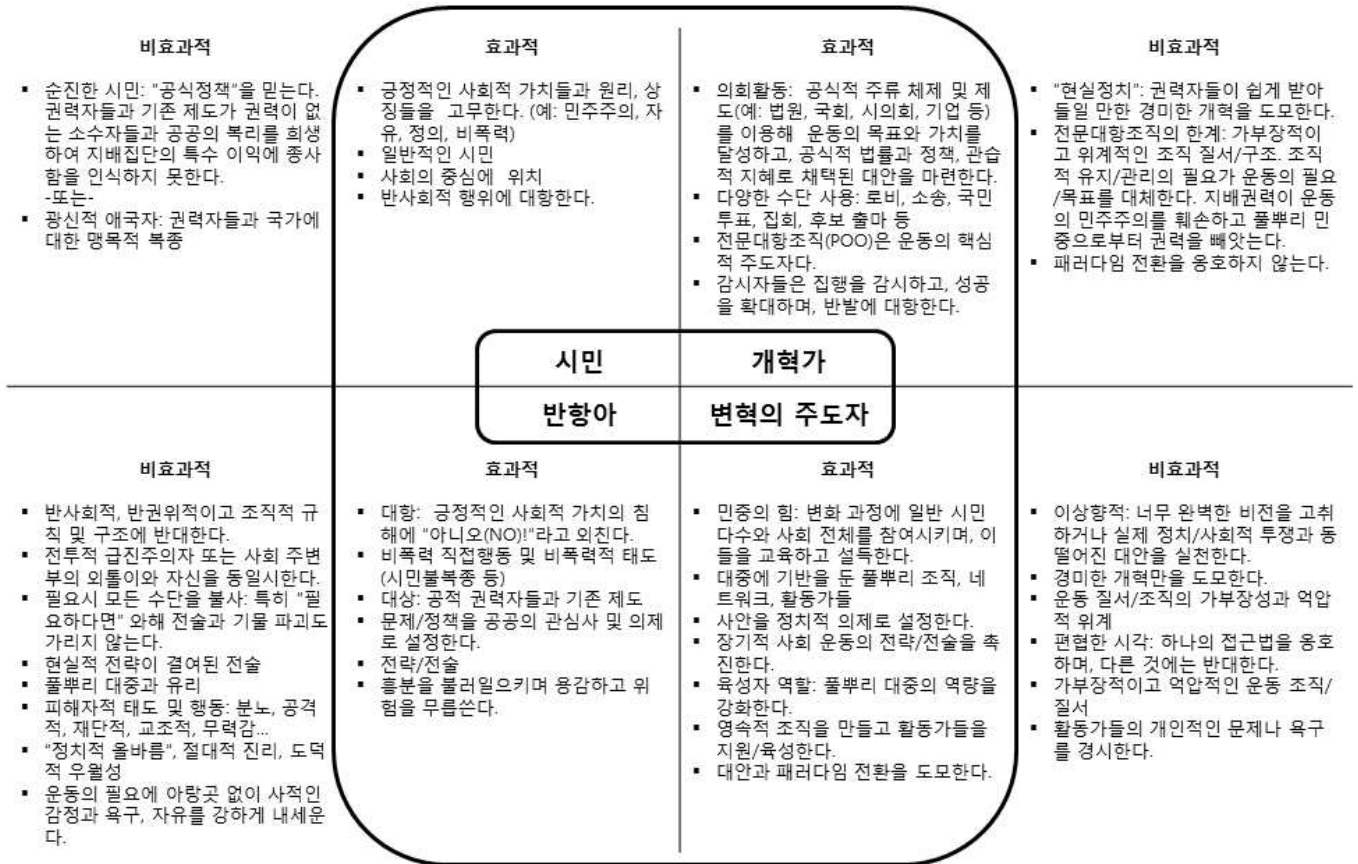
변혁의 주도자(change agent)는 모든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그들은 사회 구성원 다수를 교육하고 설득한다. 풀뿌리 네트워크를 조직하며 장기 전략을 세운다. 그러나 너무 이상향적인 비전을 고취하거나 단 하나의 방법만을 고수하여 효과적인 운동을 저해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나 활동가들의 욕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젠?

사회운동은 복잡한 현상이다. 그것은 지도(map) 속 도로처럼 활동계획짜기(MAP)의 단계들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하지만 운동의 단계와 활동가의 유형을 확인하는 것은 성공을 인식하고 미래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길을 잃었다면 지도(MAP, 활동계획짜기)를 확인해보라!

원본: 피스뉴스(Peace News) 1998년 3월 제2423호

활동가들의 네 가지 역할



활동가들의 네 가지 역할 - 참여

Adapted from Moyer, Bill. *The Practical Strategist*. San Francisco: Social Movement Empowerment Project, 1990.